머릿돌

5·6 학년

제8권

발 행 처 영생의말씀사

기 획 생명의말씀선교회 교회학교 초등부

디 자 인 문서선교부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로305번길 37

연 락 처 070-7121-1280 문서선교부

홈페이지 www.jbch.org(생명의말씀선교회) school.jbch.org(교회학교)

차례

5,6학년 머릿돌 2026년 제 8권

40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 4 10월 4일

41 살아나신 예수님 … 10 10월 11일

42 다시 오실 예수님 … 16 10월 18일

43 포도나무의 비유 … 22 10월 25일

44 예수님을 증거한 베드로 … 28 11월 1일

45 빌립의 전도 … 34 11월 8일

46 변화된 바울 … 40 11월 15일

47 고넬료 가족에게 전해진 복음 … 46 11월 22일

48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 … 52 11월 29일

49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 … 58 12월 6일

50 성령의 열매 … 64 12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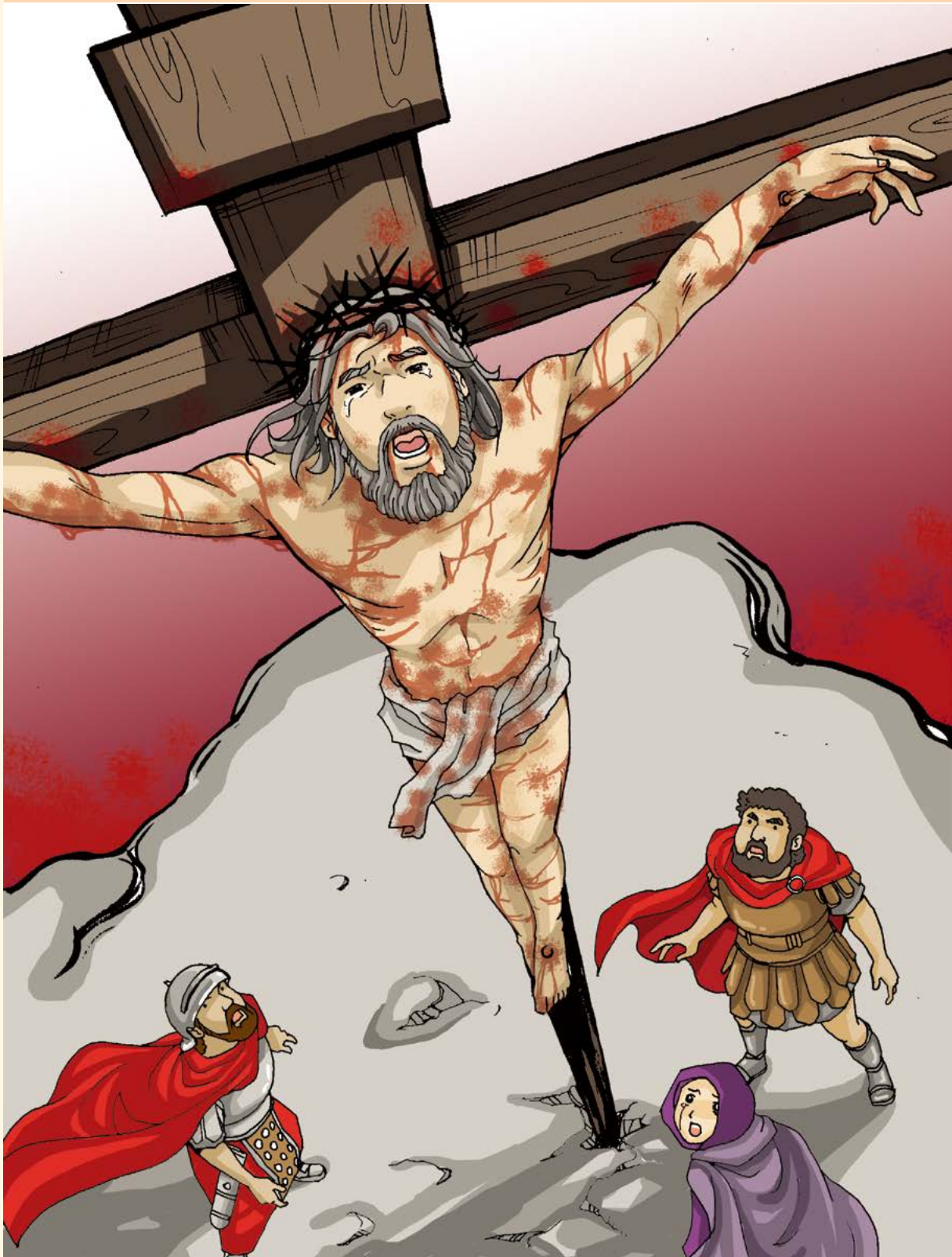
51 새 하늘과 새 땅 … 72 12월 20일

52 학년을 마치며 … 78 12월 27일

이것만은 기억해요! … 83

40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요한복음 18~19장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하시고 영혼이 돌아가셨습니다.

유월절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때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유다는 은 삼십을 받고 군인과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빌라도는 여러 말로 예수님을 심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죄도 찾지 못하여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하였습니다. 유월절이면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바라바와 예수 중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는 당시에 유명한 강도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성경 암송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요한복음 19:30)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였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로 엮은 면류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조롱하며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을 데리고 사람들에게 나아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다 사람들은 미친듯이 소리쳤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는 손을 씻으며 말하였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 주려고 했지만, 유대인을 두려워해 결국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일을 이룬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을 본 한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자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요셉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싸서 아직 사람을 장사한 적이 없는 새 무덤에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죄 없는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을 적어 보세요. (요한복음 19:30)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으시면서 이루신 일은 무엇인가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 ☐☐☐ ☐☐ ☐
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3)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우리가 아직 ☐☐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 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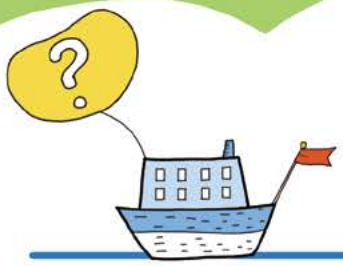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나는 구원을 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나요? 그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했을까요?

죄인이었던 나는 죽어서 지옥에 갈 운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_____ 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알아볼까요

죄수의 형벌 도구, 십자가

십자가는 고대의 페르시아, 애굽, 앗수르에서 죄수를 고문하고 처형하기 위해 나무로 만든 형틀입니다.
십자가는 페르시아 사람들에 의해 로마로 전해졌고 노예나 죄수를 사형시킬 때 흔히 사용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 방법은 너무 가혹하고 치욕적이어서 로마 사람들에게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죄수의 양팔을 사람의 키보다 약간 큰 나무에 못 박아 고정시켜 매달려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가 몸의 밑으로 몰리게 되고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호흡이 빨라지고 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더구나 죄수의 죽음을 앞당기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심한 채찍질도 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으로 며칠을 보내며 죄수들은 서서히 십자가에서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의 극한 고통과 수치를 참으셨습니다.

부모님란

선생님란